

# 올해 눈여겨볼 클래식 영재들



호남예술제 출신 이소정 등  
오디션 거친 10명 참여  
8월23일까지 금호아트홀

클래식 영재들의 등용문인 금호주니어 콘서트가 19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시작된다.

오는 8월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콘서트에는 피아노·현악·관악·성악 등 4개 분야, 10명의 연주자가 참여한다. 연주자들은 지난 2월 실시된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을 통해 선발됐다.

올해로 9회를 맞은 금호주니어콘서트는 만 26세 이하 주니어 연주자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다.

19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첫 공연은 플루티스트 김성민씨가 장식한다.

레퍼토리는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A장조 1032번', 포레의 '판타지 79번', 타파넬의 '미농 주제에 의한 그랜드 판타지', 바레즈의 '밀도 21.5', 사미나테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티노', 뒤티외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네' 등이다.

부산에고 졸업한 김씨는 2016년 제 28회 부산음악콩쿨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박찬업, 문명자, 정은지를 사사했다. 현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1학년 재학생이다.



플루트 김성민



피아노 차승우



바이올린 홍지유



피아노 남여울

이러 26일에는 소프라노 이소정(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3년)씨가 무대를 장식한다. 제7회 목포대학교 전국 음악콩쿠르 최고상, 제7회 전남대학교 전국 음악경연대회 고등부 1위, 제57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등을 수상한 이씨는 헨델의 '참기쁨', '내 운명을 슬퍼하라', 브람스의 '흐르는 멜로디처럼', '오월 밤'을 비롯해 모차르트, 포레, 푸치니의 곡 등을 들려준다.

다음으로 소프라노 서인선 독주회(8월 7일), 피아니스트 차승우 독주회(8월 9일), 플루티스트 김희송 독주회(8월 14일)가 이어진다.

또 8월16일과 20일에는 최성민(광주에고 2년)군과 박지은(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석사 2년)씨의 피아노 독주회가 각각 열린다.

8월 21일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 김하은씨는 제57회 호남예술제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제5회 국립전남대학교 콩쿠르 고등부 1등, 제8회 우인아트콩쿠르 1등, 제14회 (사)서울오케스트라 콩쿠르 2등을 차지했다. 김씨는 이날 공연에서 스카를라티의 '피아노 소나타 D장조 119번',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E단조 31-3번', 모차르트의 '뒤포르의 마뉴에트에 의한 9개의 변주곡' 등을 선보인다.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콘서트도 눈길을 끈다. 홍지유 바이올린 독주회는 8월 22일 열린다. 홍양은 제61회 호남예술제 현악중주 금상, 제62회 호남예술제 현악중주 금상, 제62회 호남예술제 현악중주 금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광주 송의중학교 1학년 재학생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드

보르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네 개의 낭만적 소품',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악마의 트릴',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6번 B장조 378번', 사라사테의 '서주와 타란텔라 C장조 43번'을 무대에 올린다.

남여울(목포영산초 4년)양은 8월 23일 피아노 공연 무대를 갖는다. 남양은 제61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제62회 호남예술제 금상을 수상했다. 레퍼토리는 바흐의 '인벤션 13번 a단조 784번', '신포니아 8번 F단조 794번', 모차르트의 '아 말썬드 릴게요, 어머니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피아노 소나타 B장조 333번', 베토벤의 '화려한 론도 E장조 62번' 등이다. 전석 1만원. 문의 062-360-843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문화읽기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문화적 힐링을 위한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한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선진도시들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인기를 얻는 문화공간은 다름 아닌 미술관이다. 우리사회의 지적인 문화유산과 현시대의 정신적 가치를 보여주는 미술관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존재성 자체로 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미술관의 기능을 단순명료하게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미술관들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미술은 모든 사람의 것이므로 미술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예술의 창작과 수용에 활력을 주는 자연스런 소통의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문화공간이어야 한다.



윤익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이처럼 문화수도는 광주라는 인식이 있다. 현재 국내에 국립박물관은 무려 40여개가 존재하며 이들은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과의 공조를 통해 활발한 연구사업과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옛 기무사터에 2013년 11월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이어 올 12월 청주에 수장고를 겸하는 청주관이 개관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스럽

##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바라며

우리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미술관은 일제의 문화정책에 의해 덕수궁 내에 설립된 이왕가 미술관이었다. 8개의 전시실과 수장고, 강당 등을 갖춘 일본과 우리나라의 미술품들을 전시하였다. 국내 미술관은 이후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불안정한 정치상황에 휘둘러 체계적으로 발전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립현대미술관 본연의 건물을 가지게 된 것은 1986년에 와서다. 이렇듯 우리나라 미술관의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은 셈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광주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설립되어 지방자치화 시대에 어울리는 미술관 활동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향의 분고장 광주에서 1992년에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은 국내 지방공립미술관 1호로서 광주비엔날레와 더불어 광주를 세계적인 미술도시로 떠오르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미술관은 인간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된 것으로 미술에 대한 예술적 감상을 위하여 수집, 전시,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지만 오늘날 미술관의 기능과 업무는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수도를 꿈꾸는 전통예향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가 지역사회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첫 번째 당위성으로 정치, 경제수도는 서울

게 차기분관의 예정도시 후보는 문화수도인 광주가 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명분이 우리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현재 2007년 광주시립미술관 신축 당시 후보공간이었던 중앙초교를 언급하나 향후 전문기집단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새로운 후보군의 물색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명동의 서석초교, 양림동의 구. KBS사옥, 상무소각장, 중외공원, 전남방직, 무등산 인근 등 향후 광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광주시민의 문화향유 확대, 도심재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방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경우 국내의 대표사례처럼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국제공모 등 신축의 선택이 있다.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은 슬럼화된 지역의 화력발전소이었고 프랑스 국립루브르박물관은 기존의 왕궁이었다. 한편 유명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과 프랑스 파리의蓬피두센터는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가들의 작품으로 신축하여 추진되었다. 미술관은 문화공간이며 교육공간이고 시대를 상징하는 담론의 공간이다. 우리 고장 광주에도 미래를 위한 멋진 미술관이 자리하기를 기원한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 '빅 식' '어느 가족'...광주극장 7월 상영작

광주극장이 7월 상영작을 공개했다.

19일 개봉하는 영화 '빅 식'은 정략결혼에 발목 잡힌 파키스탄 남자가 코마에 빠진 전 여자친구를 통해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스 영화다. 주연을 맡은 쿠마일 난지아니와 그의 아내 에밀리 V.고든의 실제 러브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류이치 사카모토: 에이스크'는 20일 오후 7시40분, 22일 오후 3시10분에 만날 수 있다. 영화는 류이치 사카모토가 지난해 발표한 'async' 앨범을 선보인 콘서트 실황을 담았다. 단 200명만 관람 가능했던 기념 콘서트로 비동시성, 소수, 혼돈, 양자물리학, 인생무상이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작곡한 곡들을 다양한 악기와 사물을 통해 연주해 눈길을 끌었다.

영화 '어느 가족'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으로 26일 개봉한다.

영화는 할머니의 연금과 흡진 물건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우연히 길에서 떨고 있는 다섯 살 소녀를 데려와 함께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강렬한 색채와 영상미, 매혹적인 음악이 인상적인 루카 구아디니노 감독의 여류 3부작 중 첫 편인 영화 '아이 엠 러브'도 26일 개봉한다.

영화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상류층 재벌가로 시집 온 엠마가 삶의 회의를 느끼던 중 아들의 친구인 요리사 안토니오를 만나 이전과 달라진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

이밖에 대만 뉴웨이브의 거장 허우 샤오시엔의 작품 '연연풍진'은 21일에 만날 수 있으며 가족사와 대만 역사를 교차시킨 영화 '비정성시'는 27일과 29일 2회 필름상영된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빅 식'



'어느 가족'

나만 믿고 따라와

#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